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7월 23일(주일) 제1157호

8월 2일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보고 싶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7월 31일~8월 5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추모예배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서빙고 본당
(10시 30분) (19시 30분)

8월 2일은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다. 온누리교회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목사님을 기억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예배는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믿음 시리즈'를 주제로 설교한 영상이 상영된다. 추모예배는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 사회, 양재수 장로 대표기도,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설교 순으로 진행된다. 하용조 목사가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추모예배는 8월 2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 사회, 이철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권준 목사 설교 순으로 진행된다.

하용조 목사는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



포에서 태어났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폐결핵을 앓던 중에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1974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MDiv), 197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76년 한국 최초로 연예인교회를 개척했고,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세웠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창립했다. 1994년 '1만/2천 비전' 선포, 2003년 'Acts29비전' 선포, 2005년 'CGNTV 개국', 2007년 '러브소

나타 전도집회' 시작, 2010년 'NGO 더 멋진 세상' 창립 등 선교와 전도에 평생을 바쳤다. 2011년 7월 주일설교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켰고,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저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목숨을 건 일 본사랑 러브소나타> 등 90여 권이 있다.

문의: 02-3215-323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러브소나타 동경 '일어나 함께 가자'

7월 25~26일, 일본인 5,000명 참석 예정

대망의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가 이번 주에 막 오른다. 7월 25~26일 동경국제포럼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인 봉사자 1,799명, 일본인 참가자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력교회도 198개나 모였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이이즈카 목사(뉴라이프패밀리처치)는 "동경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있다"고 했고, 미우라 유코 성도(구온그리스도교회)는 "이번 러브소나타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주를 찬양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배수영 자매(일본어예배, 통역봉사자)는 "처음 러브소나

타를 섬겼을 때의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러브소나타 동경은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순으로 진행된다. 25일 열리는 교회세미나는 동경국제포럼 D5홀과 아사쿠사바시교회에서 열린다. D5홀에서는 박종길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 아사쿠사바시교회에서는 마루야마 강사, 모리베 제럴리스트, 오오카와 목사가 강의를 한다. 같은날 오후 7시에는 동경국제포럼 A홀에서 가스펠나이트가 개최된다. 26일 오전 11시에는 뉴오타니호텔에서 리더십포럼이, 오후 7시에는 동경국제포럼 A홀에서 러브소나타 동경 집회가 개최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

교하고, 박진아 작가(샌드애니메이션),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안토니오 코가(기타리스트), 최지우(배우)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번 러브소나타는 동경에서 열리는 두 번째 집회다. 지난 2007년 7월 사이타마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는 20,691명(일본인 15,684명, 한국인 5,007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적이 있다. 당시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 약 1,364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치, 외교, 산업, 문화, 금융, 인구가 집중된 명실상부 일본의 최대 도시다. 그러나 기독교 교세는 약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1천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유명한 절과 신사도 많다. 일본 왕이 거주하는 황거가 있어 영적인 중압감도 무거운 곳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7월 24일과 25일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실시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방시설과 소방안전문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이 있다면 오늘까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검사다. 점검이 실시되는 동안 사이렌 및 경고방송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120

특집_ 국내 아웃리치 여기로 가자!

그곳에 섬마을 목사와 어르신들이 계신다

전남 여수 제도교회, 교회와 집수리, 마을잔치 요청



아웃리치 시즌이다. 본지에서는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어촌선교팀의 자문을 받아 가급적이면 도움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이웃들과 교회를 우선 선정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제도교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섬에 사는 것은 예능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솔직하게 말하면 섬 생활은 결코 낭만적일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섬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가기 어렵고, 자녀 교육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낱씨가 굵어서 학기 중에 절반을 등교도 못한 경우도 있다. 그물을 걸어 오겠다며 배를 타고 나간 가장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가슴 아픈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섬사람들은 우상에 기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의 아픔과 상처, 거친 풍랑을 우상이 거뒀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숭배의 대상도 다양하다. 바람이나 바다처럼 형태가 없는 것들을 우상으로 모시면서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배타고 바다에 나간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있다.

섬사람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유인도가 398개 있는데 그 섬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목회이자 사역이다. 정윤철 목사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제도에 서 사역하고 있다. 주민들이 거뒀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아픈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때로는 섬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정윤철 목사와 고물 승용차

전라남도 여수는 다도해다. 섬이 371개나 있다. 제도로도 그 섬 중 하나다. 하늘에서 보면 섬의 모양이 제비를 닮았다고 해서 '제도'라고 불린다. 평균 연령 70살이 훌쩍 넘는 주민 100

여 명이 살고 있다. 제도는 참 조용하고 잔잔한 마을이다. 이렇다 할 특산물도 없고, 관광할 것도 별로 없다. 철따라 방풍나뭇을 뜯고, 바지락을 캐다 파는 것이 소득의 대부분이다. 어장을 운영하는 주민도 몇 사람 없고, 관광객도 거의 없다.

지난 7월 13일 오전 8시, 제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이 뜨는 전라남도 여수시 남단 백야리 선착장에 도착했다. 여수 시내에서 선착장으로 오는 내내 안개가 짙어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나 여객선이 결항되었다. 낱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주민들은 여유가 넘쳤다. 낱씨가 굵어 배가 결항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했다. 햇볕이 한참이나 내리 쬔 다음에야 해무가 걷혔다. 오후 2시 50분 여객선을 타고 제도에 갈 수 있었다.

나루에 정윤철 목사가 나와 있었다. 반바지에 핑크색 티셔츠, 시원시원한 목소리, 웃음기 가득한 얼굴, 불룩 튀어나온 배를 보자마자 웃음이 절로 났다. 정말 포근한 인상이었다. 정 목사가 주민들과 똑같이 사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도 어르신들의 아들이자 편안한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제도 주민들이 정 목사를 참 좋아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저를 엄청 어려워했어요. 교회에 화장실이 두 칸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 전용일 정도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주민들 중에도 목회자를 우상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회자 옆에 서지도 않았고,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 그러나 정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는 그렇게 딱딱한 것이 아니었다. 정 목사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진짜 아들 같이 친근하



▲ 20여 명의 주민들이 제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온누리교회가 비전헌금으로 선물해준 승합차와 정윤철 목사, 최정미 사모.

게 주민들을 대했다. 평일에는 일부러 옷을 가볍게 입고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다. 특별한 재주는 없었지만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마을 일을 도왔다. 때로는 택시 운전기사로 변신했다. 마을에서 선착장이나 여수 시내까지 부지런히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녔다. 20만km를 훌쩍 넘을 만큼 오래 된 승용차였지만 제도의 보물이었다. 매년 봄에는 다른 교회의 승합차를 빌려 어르신들과 함께 온천나들이도 다녔다.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던 정 목사의 승용차가 지금은 안녕하지 못하다. 지난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사역팀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갔다 고장이 나버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사역팀 구자엽 팀장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차가 고장 나서 전전긍긍하는 정 목사님과 달리 두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 놀더라고요. 차가 고장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가슴이 아팠어요.”

겨우 응급처치를 해서 제도까지 오긴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말뚝을 부렸다. 이번에는 완전히 멈춰 섰다.

“차가 완전히 퍼져서 꿈쩍도 안하더라고요. 결국 폐차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승합차를 선물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농어촌선교회가 성도들이 봉헌해준 비전헌금으로 제도교회에 중고승합차를 선물해줬다. 12만km를 운행한 중고차였지만 세상 그 어떤 차보다 값지고 좋았다.

“제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승합차에 제도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여수 시내를 몇 바퀴 돌았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는데 온누리교회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정 목사의 성공적인 목회 비결은 친근함이었다. 제도 어르신들은 명절 때만 볼 수 있는 자녀들보다 정 목사를 더 가깝게 느낄 때가 많다.

부산에 살던 부산산사이 정윤철 목사가 제도에 온 것은 7년 전이다. 지인의 부탁으로 설교

한번 하러 온 것이 인연이 되어 제도교회를 섬기게 됐다. 제도 주민들에게 40대 젊은 목회자 부임은 흥부전에서 제비가 물어다준 박 씨만큼 큰 기쁨이었다. 노인들만 있는 적막하던 섬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이 한 명 없는 마을에 정윤철 목사의 네 딸이 함께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마을경사나 다름 없었다. 정 목사가 주민들과 한 마을에 사는 것만으로도 목회가 되고, 전도가 됐다.

온누리교회가 꼭 도와줘야 할 일

물론 섬 생활은 쉽지 않았다. 쌍둥이 막내딸이 이웃 섬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낱씨 때문에 등교하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다. 정 목사의 건강도 나빠졌다. 고혈압이 생겼다. 활동적인 성향인 그에게 제도는 너무 좁았다. 사례도 줄어서 보험이 안 되는 치과치료는 마음 편히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도 정 목사는 제도를 절대 떠날 수 없다.

“제도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통 섬마을보다는 사머니즘이 약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정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확실히 제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 덕분에 제도교회도 부흥했다. 정 목사 부임 당시 10명 남짓이던 성도가 40명으로 늘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시고, 몸이 아파 물에 나간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성도 20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주일예배 빠짐없이 출석하는 성도가 많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정 목사와 제도 섬마을 주민들을 도와줘야 할 일이 또 있다. 교회와 사택, 주민들의 집이 너무 낡아 당장 수리를 해야 한다. 전도를 위한 마을 잔치도 열어주면 좋겠다. 음향기계를 다룰 줄 아는 성도가 있으면 음향기계도 다시 세팅해주면 좋겠다. 음향기계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출장비용이 너무 비싸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

문의: 정윤철 목사 010-4556-6461
주소: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제도1길 15-1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과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탁월했던 과학자가 어렵게 발견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 지식을 알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과거 유명하고 탁월했던 과학자보다 정확하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개별적으로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21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과거 초대교회의 글을 모르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담아두는 공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여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4:8).

음식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 음식을 맛본 체험이 없다면 그 음식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체험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속성들은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식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이 만들어 내는 교만일 뿐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나타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3절).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8절).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월해 계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앞서 가신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배반하기 쉬운 이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꺼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의 성향이 많고, 불평하고 배반하며,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들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걸어갈 때는 자녀의 발걸음에 맞춰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즐거이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철저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입니다. 모세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산 것이 아닙니다. 출생부터 120년 동안 그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역사적인 시점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갈대상자에 넣어 구원하시고, 바로의 공주에게서 양육하게 하신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신 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게 하신 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문화를 배웠을 때 곧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

았겠습니까. 그에게 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기에 다른 백성들보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인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3일 앞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120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정보를 수집하셔야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보를 수집해야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충동,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나보다 앞서 그곳에 계시사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먼저 그곳에 계시며 또한 영원히 계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축복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내일로 뜨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다음에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태양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물리적 우주에 만들어진 그분의 길 즉 자연 법칙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자연 법칙을 넘어서 그분에게까지 나아가라. 자연 법칙의 원인이요 주인이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동성애, 탈출구가 있다

탈(脫)동성애자의 고백

“교회와 공동체의



◀ 동성애자에서 복음전도사로 변신한 박진권 성도



35년 동성애에서 벗어난 강순화 성도 ▶

지난 14~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8회 퀴어축제를 기점으로 동성애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동성애자, 변태성욕자, 옹호자 등 8만 명이 운집했다. 인권위원회, 주한대사관, 각 대학 성 소수자 모임, 인권단체, 종교계도 동참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동성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요구일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아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죄일 뿐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탈(脫)동성애한 어느 동성애자가 직접 밝힌 전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 관련 현상을 파악하고,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봤다.

/ 정현주 기자, 이소정 기자

한때 동성애자였던 이들을 만났다. 한국가족보건협회 탈동성애 팀장 박진권 성도(33세)와 강순화 성도(45세, 춘천 한마음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계속 마음이 쓰였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동성애를 막을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경험담을 모두 털어놓아도 좋다고 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교회와 공동체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교회가 탈동성애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숨기고 싶던 과거가 간증이 된다고 노래했다. 아직도 동성애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녹아 있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찢고, 망가뜨리고

박진권 성도는 15년 넘게 동성애자로 살았다. 유년시절 친척 형을 따라 한 성적(性的)장난이 동성애에 눈을 뜨게 했다. 자신이 동성애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느 날 친척 형이 레슬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프로레슬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친척 형이 옷을 다 벗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충격과 성적 쾌락을 동시에 느꼈다. 싫으면서도 좋았다. 그 느낌이 거부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고 동성애로 끌어당겼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장난의 수위가 더욱 짙어졌다. 친구들이 그에게 성적 쾌락을 함께 누리자고 요구했다. 그런 일이 반복 되다가 어느 순간 동성애자가 되었다.

“홀딱 벗은 여자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데 남자들이 지나가면 흥분이 되고 사귀고 싶더라고요.”

그에게 동성애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았다. 맛보면 맛볼수록 짜릿하고 자극적이었다. 그 맛에 미쳐 계속 찾게 되었다.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생이 되어서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시절 매일 큐티하고 영성훈련을 받으

면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신앙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 커밍아웃도 해보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빛뿐이었다. 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회피가 그를 더욱 고립시켰고, 다시 동성애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더욱 괴로워졌다. 앞선 데 댔던 격으로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다. 아버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 더 방탕하게 살았다.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 동성과 관계 맺는 것을 즐겼다. 이미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탕자가 된 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는 계기가 있었다.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현실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간간히 예배드리러 갔던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진권아, 너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너무 따뜻했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곧장 집을 나서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밖을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다.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와 공동체가 붙잡아줬다. 목사님은 그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해줬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 소모임에서 동성애자였음을 이야기하자 그를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반복했더니 동성애가 싫어지고 나중에는 역경더라고요.”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박진권 성도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다.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가 한때 동성애자로 살았던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뜻만 있으면 동성애는 극복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의롭게 지킬 수 있거든요.”

35년을 레즈비언으로 살다

강순화 성도(45세, 춘천 한마음교회)는 35년 동안이나 동성애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복음사역자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끔찍한 일을 당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버지와는 불화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 그런데 남자와 달리 어머니와 여자 친구들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 부드러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낀 외로움이 그녀를 동성애에 빠지게 만들었다. 시작은 직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언니와 사귄 것이었다. 스킨십이 깊어지면서 처음으로 동성애가 주는 쾌락의 달콤함을 맛봤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6개월 만에 헤어졌다. 교회를 다니던 그 언니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녀를 떠났다. 강순화 자매도 모태신앙인이었지만 큰 죄책감은 없었다. 때마침 생긴 레즈비언 카페에 가입해서 또 다른 동성연인을 만났다. 그녀도 기독교인이었기에 함께 교회를 다녔다. 그들의 밤은 은밀했다.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조여 오면서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했다. 공황장애약을 먹으면서 동성애를 잠시 중단했다. 하나님 주신 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황장애 증상이 관촬이되면 쾌락에 대한 갈망과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다. 그 외로움이 다시 그녀를 동성애에 빠지게 만들었다. 레즈비언바와 클럽을 수시로 다녔다. 한참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면 공허함과 허탈감만 남아 있었다. 죄책감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동성애 벗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정기도, 금식기도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만큼 간절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주는 쾌락이 너무 강렬했다. 자꾸 그녀를 유혹했다. 그렇게 자신과 싸워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그녀에게 한줄기 빛이 다가왔다. 교회였다.

“친동생의 소개로 간 교회에서 복음으로 동성애를 극복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곳이 춘천 한마음교회였죠.”

곧장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교회와 공동체는 그녀를 사랑으로 품고, 자신의 일인 것 마냥 뜨겁게 기도해줬다. 그때를 회상하던 그녀의 눈과 코가 빨개졌다.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도망치려고 시도도 했어요. 그때마다 지체들이 저를 진심으로 믿고 기다려줬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동성애와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 사랑 덕분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매일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

기도가 없었다면...”



왔어요. 그제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악한 죄가 보이더라고요.”

진리가 그녀를 강타했다. 회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었다. 복음이 들어오자 참 자유가 찾아왔다. 동성애에 대한 갈망과 유혹도 완전히 사라졌다.

강순화 자매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무덤까지 비밀로 하려했던 그녀가 그 사실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알리고 복음 사역자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

“동성애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동성애라는 모조품 사랑과는 비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동성애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동성애 수용도 증가율 세계 1위, 한국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얼핏 보면 광고카피 같지만 이 문구는 2014년 퀴어축제 주제였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장이다. 2015년 퀴어축제 주제는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레볼루션’이다. 동성애자들을 마치 사회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혁명적 전사로 묘사했다. 올해는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였다. 동성혼 합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문구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성애의 폐해에 알리고, 더 큰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 서구 사회와 교회가 이미 경험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최근 동성애가 방송, 드라마, 영화, 소설, 웹툰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마치 동성애가 대중적인 코드가 된 것 같다. ‘탑게이’ (Top Gay)라는 별명을 가진 방송인 홍석천은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동성애와 게이, 트랜스젠더 등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것들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영향으로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통계가 있다. 미국의 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동성애 수용도’를 조사했는데,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한국인이 39%였다. 이는 2007년 조사(18%) 때 보다 두 배가 높은 수치다. 증가율로만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동성애 수용도가 가장 높다. 2위인 미국보다도 10%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동성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용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동성애 수용도가 증가하면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가 더 거세진다는 것이다. 현재 23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15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7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대만 사법원(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대법관회의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만약 이 법이 합법화되면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민법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이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오히려 역차별 부른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인권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퀴어축제 퍼레이드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差別禁止

法)은 이름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혹은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내용만 보자면 정말 좋은 법이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동성애자들과 기독교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까. 사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이 이미 있다. 그럼에도 유독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는 소송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37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액의 2-5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39조).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해고나 징계, 퇴학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제43조)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학교 프로그램에 동성애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미션스쿨의 채플 대신 다른 과목을 대체해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평등법이 통과될 때 그 나라 교회들은 정치적인 문제는 신앙과 관계가 없다면서 개입하지 않았다.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에서 동성커플이 결혼하는데 주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가 처벌을 받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를 옥죄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교회의 건전한 비판마저 원천 봉쇄되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다.

참상 알리고, 더 큰 목소리로 반대해야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 감염이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 1,081명 중에서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사례는 없었고, 모두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는 주사바늘과 수혈을 통한 감염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우리나라 에이즈 누적 감염자 1만여 명 가운데 92.4%가 남성이다. 이들 중 92.11%가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됐다. 세계적인 의학서적 <해리슨 내과학>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에이즈는 대부분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미국에서 2005년 에이즈 감염으로 진단된 성인과 청소년의 49%가 남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됐다. 에이즈 전파는 항문성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대 에이즈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15~19세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은 20%로, 20~24세 증가율 15%를 압도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애에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4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24%가 ‘그렇다’고 했다. 연령에 따라 편차가 컸다. 60세 이상은 10%만 동성애를 인정한 반면 20대는 44%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여겼다. 이 같은 경향은 한 기독교 언론매체에서 전국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의식조사(2014년)에서도 나타났다. 비기독교 중고생의 65.8%가 ‘서로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고 했고, 기독교 중고생 역시 27.7%가 동성애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는 28.9%에 달했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난 5월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한동대학교처럼 담대해지고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

한때 동성애자였던 박진권 씨(한국가족보건협회 탈동성애 팀장)도 교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음란함과 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을 조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교회가 더욱 목소리 높여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

푸른누리공동체 '미혼모 캠프'

우리 가족은 작년 이맘때 푸른누리공동체에 들어왔다. 1년 만에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두리홈에 있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됐다. 이번 캠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테이블리더였다. 두리홈 자매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역할을 맡아 부담이 되었다. 내가 맡수가 적은 편이기도 했고, 처음 본 자매들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캠프 장소로 향하면서는 날씨 때문에 걱정을 했다. 물놀이, 바비큐파티 등 야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비가 주룩주룩 내렸기 때문이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캠프 장소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밖에 나와 보니 비가 그쳐 있었다. 할렐루야! 감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두리홈 자매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손수 만들어진 케이크를 꺼내고, 오렌지주스도 만들어서 테이블을 세팅했다. 두리홈 자매들도 도착했다. 짐과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그녀들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런데 두리홈 자매들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내가 맡은 테이블에 앉은 자매는 모두 4명이었다. 두리홈을 퇴소해서 지금은 일도 하고, 육아와 더불어 자격증 공부도 하느라 전날 두 시간 밖에 못 잔 자매, 척추측만증으로 허리수술

을 한 지 얼마 안 된 자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자매였다. 2명은 피곤하니 숙소에서 쉬고 싶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평소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했으니 이번 기회에 수영장에 가겠다고 나가버렸다. '이러려고 아웃리치 온 게 아닌데...' 마음이 무거워졌다.

테이블리더가 본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저녁 프로그램 시간이 되었다. 다른 테이블에 비해 인원이 적고, 모두 지쳐있었다. 열심히 임했지만 꼴찌를 했다. 자매들의 반응도 시원찮았다. 빈정이 상한다는 자매, 제발 그만하고 자고 싶다는 자매들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테이블리더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했다. 결국 그날은 막막한 분위기로 일과가 끝나고 말았다.

다음날, 예배와 교제 나눔 시간이었다. 어제보다 자매들의 얼굴이 밝아보였다. 어제 테이블 분위기가 흥이 안 난 것에 대해 그들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먼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겠는가. 서로 아이 키우는 얘기도 하고, 일하며 아이 키우는 고충도 나눴다. 수다스러운 분위기에 어제의 어색함이 싹 사라졌다. 천진난만하게 재잘대는 그녀들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부럽기도 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다. 우리 테이블은 처음부터 뜨거웠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자매,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진 자매,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은 듯 안 울려고 애쓰는 자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엄마들



천사같은 미혼모들이 화관을 쓰고 꽃받침을 하고 있다.

일하는 순간을 생생히 목도했다. 내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졌다. 그녀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았다. 눈빛도 한결 편안해졌다. 화관을 씌워주고 안아주자 "제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라며 부끄러워하는 자매를 보니 더 세계 안아주고 싶었다.

화관을 쓴 그녀들의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다. 따뜻한 눈빛을 지닌 엄마이기도 했다. 그녀들을 위로하겠다는 나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고, 그녀들을 통해 위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

나님 아버지께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말이 느리고 고집이 세서 걱정이라는 A자매,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해서 아이와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B자매, 작년 캠프 때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았던 아이가 올해는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으며 아이의 성장을 감사해하던 C자매, 그녀들 덕분에 조금은 성장한 나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자녀) 덕분에 기쁨이 넘치는 엄마들이다.

/ 박세향 성도(푸른누리공동체)

허브공동체 동아시아 A국



김보성 자매
(허브공동체)

이번 여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해외 아웃리치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마침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다.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나 스스로 채워야 했다. 이것도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또한 들어주셨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3주 동안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급여의 일정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에 함께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 큰 기대감을 갖고 동아시아 A국 땅으로 향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나의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였다. 그래서 동아시아 A국에 가기 전부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다. 다른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곳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웃리치 첫날, E교회에서 청년들이 예배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동아시아 A국의 교회는 모두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이 깨졌다.

우리는 그곳 청년들과 힘을 합쳐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전도집회 첫날은 미리 초청했던 D 지역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다. 약 130여 명이 모였다.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를 거뒀다.

두 번째 날에는 S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도집회였다. 이번에는 사전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마을을 돌면서 초청장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초청했다. 첫날보다 적은 50명 정도가 참석했다. 사람의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집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무려 3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 사건의 기쁨이 넘쳐흘렀다.

이틀 동안 어린이캠프도 진행했다. 어린이캠프를 통해 이곳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뛰어 놀았다. 어느 한 친구가 나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주었다. 그냥 놀아준 것 밖에 없는데 그 아이는 나에게 감사를 전했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도



동아시아 A국 어린이들과 함께한 어린이캠프.

다. 그 사랑과 축복의 편지를 보면서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열방과 한 영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열리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린다

대전 영아부 여름캠프



오승아 성도
(대전 영아부)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도착한 아이들을 반겼다. 신나는 찬양을 듣고 사전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름캠프의 주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주제 말씀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공과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었다. 캠프 다음날 주일예배에서는 기념품과 수료장을 전달했다. 이것이 대전 영아부 여름캠프 일정이었다.

여름캠프는 나에게 일 년에 1박2일밖에 없는 그저 감사하고 즐거운 연례행사였다. 영아부 교사로 섬기면서 물 흐르듯 진행되는 차세대 여름캠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영아부는 나의 첫 섬김의 자리다. 단순히 주님께 무엇인가를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한 해 두 해 사역하던 중에 올해는 데코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자신도 없고 둘째 아이도 아직 어려서 망설여졌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들이 숙련된 솜씨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똑딱 데코작업을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많은 데코가 필요한 여름사역 시즌이 다가오고 말았다. 당연히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자꾸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나 자신이 창피했다.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데코를 아름답게 잘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기쁘게 사역을 해내는 것인데 말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느껴지는 나의 연약함이 주님과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캠프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끊이지 않는 주변의 위로와 사랑이 이어졌고,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으로 아름다운 환경이 꾸며지기 시작했다. 여름캠프가 진행되는 3층 공간을 데코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만지고 훈련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일을 할 때 형통할 수 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 너무 연약해서 작은 돌부리에도 잘 쓰러진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손을 꼭 붙들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데코팀이 정성스럽게 꾸민 '창조바다'에서 활동하는 대전 영아부.

군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 말씀 묵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 또한 부족한 나

를 달라고 응원하면서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신 영아부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과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양지 예수님의꿈아이 여름캠프



이은미 전도사
(양지 예꿈 담당)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이하 예꿈)는 지난 7월 8-9일 여름캠프 '창조탐험대'를 개최했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까지 100여 명이 모였다. 여름캠프 당일

에도 큰 은혜가 있었지만 준비 과정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특히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에 나와 함께 준비하고,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돕고 싶다면 교회에 오는 교사들이 있었다.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간식이라도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도 감동이었다. 교사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오리고 자르기를 반복하면서 캠프를 준비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이번 캠프가 더욱 풍성했던 시간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성령님께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캠프 하루 전날이었다. 환경 정리를 마치고 코치님들과 나만 남아 있었다. 사야 할 것도 있어서 시내에서 밥을 먹고 문구점에 들렀다 오기로 했다. 저녁식사를 하고 문구점에 갔는데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

었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사려면 용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코치님과 나는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문구점에 먼저 들렀어야 했다며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문구점 사장님의 차가 보였다. 내가 창문 틈새로 문구점 사장님을 알아보았고 사장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렸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일찍 문을 닫았다면서 어떻게 자기를 알아봤냐고 신기해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캠프 준비과정에서부터 우리와 함께하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7월 8일 아침이 밝았다. 전날 잠이 들 때까지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장마를 막을 길이 없었다. 기상청이 예보한대로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야외활동을 계획한 시간에는 비가 올 확률이 100%였다.

그 순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 “왜요?”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 내 마음을 바꿔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라면 그것 또한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거라는 100% 확률을 뒤엎으셨다. 서서히 내리던 비가 그쳤고,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셨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았고, 물놀이를 하면서 행복해했다. 좋은 날씨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교사들과 나

100% 확률을 뒤엎으셨다



즐겁게 율동을 따라하는 양지 예꿈 아이들.

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다.

여름캠프의 모든 시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했고, 말씀을 전하며 행복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행복이 배가 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늘 생생하게 살아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한다. 이 세상의 모든 명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질병과 영혼을 함께 치유 하는 ‘하나님의 의사들’

33인의 CMN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대, 4일 동안 1,320명 진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하나님의 의사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의료선교팀 CMN’이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의 의사들이 이번에는 아프리카 케냐 뽀바사로 의료봉사를 갔다. 그들의 의료봉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행군이었다. 아웃리치 일정 중에 한국에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꼬박 이들이 걸리는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일 동안 치료 108명, 소아과 370명, 가정의학과 296명, 산부인과 199명, 성형외과 153명(수술 6건), 비뇨기와 194명(수술 25건)을 진료했다. 진료한 환자 수가 무려 1,320명이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도 오히려 받은 사람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33인의 의료봉사 기록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이동사역 중 하나인 비눗방울 놀이.
◀ 케냐 아이들에게 한국어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주고 있다.

의료선교팀 CMN이 만나는 이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의료시설이 열악하거나 아예 없어서 의사에게 환부를 한 번 보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먼 거리를 하염없이 걸어온 사람들도 많다. 먹는 것도 부족하고, 아무리 아파도 약 한 알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이들이 의료선교팀 CMN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

지난 7월 8일 CMN 본부팀이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러가는 여정이라 그런지

설렘이 가득해보였다.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았다. 아프리카 케냐는 동아프리카에 속한다. 면적이 한반도의 26배나 되는 광활한 나라다. 케냐는 16-17세기 포르투갈,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종교는 기독교(80%), 이슬람(10%), 기타(10%) 순으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다. 의료선교팀 CMN의 목적지는 케냐 뽀바사(Mombasa)다. 뽀바사는 케냐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싸우는 섬’이라는 뜻이다. 케냐 최대의 항구이자 우간다

와 탄자니아로 통하는 철도의 기점이다.

초유의 사태, 약품을 통째로 압수당하다

뽀바사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먼 여정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까지 5시간 30분, 거기서 다시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까지 9시간을 더 비행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케냐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가야 뽀바사에 도착할 수 있었

다. 긴 여정을 견디면서 목적이 보이기가 시작할 무렵 큰 문제가 생겼다. 국제선에서 케냐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도중에 세관에서 의약품 상자 반입을 거부당했다. 세관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의약품 상자를 개봉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팀원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반입을 도와준 현지인이 의약품 신고 서류 한 장을 누락했던 것이 문제였다. 결국 의약품 전체를 반입 거부당했다. 가져온 약의 1/5만 겨우 가지고 갈 수 있었다.



▲ CMN팀을 찾아왔던 반신불수 아들과 아버지.



▲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하고 있는 박용원 집사.



▲ 수술을 하고 있는 이백권 집사.

뽀바사에 도착하자마자 김현우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제자양육센터(DTC)로 이동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이 마침 주일이라 케냐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케냐 사람들은 영어와 현지어인 스와힐리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한국어로 ‘위대하고 강한 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는지 모른다. 알고 보니 김현우 선교사 부부가 매주 주일 아이들에게 한국어 찬양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구 반대편을 돌아 도착한 케냐에서 한국어 찬양을 들으니 말 그대로 감개무량했다. 한국 사람들이 케냐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언어와 인종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자 자매였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약을 쪼개서 주고, 현지에서 구입하다

케냐의 의료 환경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좋다고는 하지만 큰 도시를 벗어나면 상황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뽀바사 지역 사람들도 병원 한 번 가는 일이 쉽지 않다. 이곳 사람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0만 원 정도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프기라도 하면 당장 먹고사는데 문제가 생긴다. 병원에 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약을 사는 것도 주저한다. 잘 먹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루에 1-2끼만 먹는다. 옥수수 가루를 반죽한 것에 채소를 곁들여 먹는 음식이 전부다. 환경이 열악하고 영양섭취가 결핍되다 보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증상도 다양하다. 눈병, 청력이상, 피부질환, 발진성 질환, 호흡기 질환, 영양 부족, 에이즈 등 상태가 심각한 편이었다. 의료선교팀 CMN이 한시도 쉬지 않고 진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해야 더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몽땅 압수당한 터라 그 많은 환자들에게 나눠줄 약이 부족했다.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처음에는 있는 약을 죄다 끌어 모아 쪼개서 나눠주고, 급한 대로 처방전만 써주고 이틀 후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현지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조사하고 꼭 필요한 약들은 구입했다. 그래도 약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는데 다행히 필요한 사

람들에게는 나눠 줄 수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반신불수 환자를 데려온 가족이 있었다. 한국에서 의료선교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겹게 찾아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 생긴 욕창을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환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아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어 다행이에요. 먼 곳까지 찾아와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작지만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번 의료선교에서는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와 진료를 했다. 가장 먼저 배정된 곳은 접수팀이었다. 접수팀은 미소로 환자를 맞이하면서 성별과 나이를 묻고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서 차트를 작성했다. 환자들의 증상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안내팀 차례였다. 차트를 보고 환자들을 분류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직접 부축해서 진료실로 안내했다. 그

게 4일 동안 치료 108명, 소아과 370명, 가정의학과 296명, 산부인과 199명, 성형외과 153명(수술 6건), 비뇨기와 194명(수술 25건)을 진료했다. 진료한 환자 수가 무려 1,320명이었다.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정이었다. 33인의 팀원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없었다. CMN팀은 의료선교뿐만 아니라 아동사역도 실시했다. 이보혜 자매(24)와 천예원 자매(20)가 머리를 빗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천사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았다. 그녀들이 준비한 아동사역은 위생교육이었다. 올바른 양치질과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쳐줬다. 한국어 찬양과 비눗방울 놀이도 함께했다. 현지 아이들이 한국어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을 따라하고, 비눗방울을 볼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풍경은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CMN 케냐 의료봉사대에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작지만 큰 기적을 만들어 냈다. 그 먼 아프리카 케냐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프리카 의료선교는 다른 지역보다 준비하는 시간과 물품이 많은데 이번 케냐 아웃리치에서는 약품을 몽땅 압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



/ 정찬의 팀장(비뇨기과)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

CMN 본부팀의 아프리카 아웃리치에 NGO 더멋진세상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



/ 이동진 집사(소아과)

“아이들과 보낸 순간이”

8일 동안의 모든 일정이 소중했습니다. 아이들과 보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



/ 이보혜 자매(접수팀)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이야기

3번의 감동과 하나님 나라

저는 아내와 승진과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강단C공통체 소망순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프리카 세네갈과 케냐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백권 순장님을 만났습니



/ 신동기 성도(강남C공동체)

“저도 CMN처럼”

저는 이번 CMN팀의 활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MN팀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조모 케냐타 농업기술대 3학년)

“작은 물고기 같은 순종을 통하여”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케냐 사람들, 특히 마사이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팀원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물고기 같은 순종을 통하여 케냐 뽀바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영한 장로(CMN 대표장로)

한강공동체 남아시아 I국



김지훈 성도
(한강공동체)

사실 내게 아웃리치는 별개의 세상이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순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순예배에서 은혜로운 모습이 있었다. 아웃리치 간증을 하시던 순모님의 표정이 내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다. 올해도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어릴 적부터 남편과 함께 아웃리치를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아웃리치 신청을 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다. 아웃리치 출국일에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잡혔다. 그뿐 아니라 회사일과 아내의 사무실 이전 문제로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 몇 번의 고비가 계속 있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용감해질 수 있었다.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 일정이었다. 낮에는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고, 오래된 S 신학교 건물외벽에 페인트칠을 했다. 밤에는

로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선교사의 밤' 행사를 통해 한인선교사들을 위로하고, S신학교 로컬 신학생들과 교제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몇 개 지역을 계속 이동했다. 하루 평균 3-4시간만 자고 좁은 차에서 부족한 잠을 보충했다. 그렇게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예배와 교제하는 일정을 반복했다.

사실 아웃리치를 오기 전에는 남아시아 I국에서 무슨 한국 방송을 수신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듣게 된 현지 사정은 전혀 달랐다. 선교사님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다. 영적인 갈급을 채울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리 현지어에 능숙해도 모국어로 방송되는 CGNTV만큼 선교사들에게 가문의 단비 같은 영적인 양식이 없었다. 안테나를 조립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피약별 아래에서 해바라기가 되어야 했다. 그늘도 없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한 끝에 CGNTV가 나오자 환호를 지르시는 선교사님들 표정은 은혜 그 자체였다.

아웃리치 동안 방문했던 두 교회도 매우 인상 깊었다. 무슬림의 박해를 피해 해발 2500미터 고산지대로 피신한 T종족의 E교회와 교회소실을 피하기 위해 도심 속 공단 깊숙한 곳에 자리한 M교회가 그곳이었다. 박해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은 S 신학생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의 눈물을 느

고백에는 기쁨이, 기도에는 희망이



남아시아 I국에 가뭇에 단비같은 CGNTV 안테나를 설치한 한강공동체.

낄 수 있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기쁨이, 기도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며칠 안 되는 아웃리치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아무리 박해받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해받는 현지 교인들에게 헌금과 선물, 작은 위로를 주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감동과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

노 선교사님의 간증도 기억에 남는다. 노 선교사님은 "이것이 네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과 M지역에서의 30여년 동안 이어온 성공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더 어려운 사역지로 갈 계획이라고 하셨다. 선교사님의 간증이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 이번 아웃리치에서 얻은 교훈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가정사역공동체 충청도 부여



최병선 성도
(가정사역공동체)

나는 '충남 부여 구룡면 구룡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 바로 앞이 논이고 집 뒤에는 산이 있다. 시골에 내려가 보면 마을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을 공터에서 뛰놀던 그 많던 아이들이 온데간데없고 연세 드신 노인들만 많아졌다.

올해는 우리 다락방만의 아웃리치를 기획했다. 아웃리치 장소를 정하기 위해 다락방 순장들이 모였을 때 내가 태어났던 시골 교회가 생각났고 그 교회를 추천했다. 모든 순장님들의 찬성을 얻어 고향마을에 있는 교회로 아웃리치 장소가 결정되었다. 고향마을에 있는 교회를 돕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어머니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몇 달 동안의 계획과 준비 끝에 드디어 고향교회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교인 수가 30명도 되지 않는 고향교회에 아웃리치팀이 찾아오면서 오랜만에 예배당이 가득 찼다. 앓을 자

리가 없을 정도였다. 서로가 잘 모르고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한 형제자매요, 지체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배는 하나 됨을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발마사지를 받으시며 행복해하시던 할머니들의 환한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살아생전 이런 대접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하시던 할머니의 모습도 두고두고 기억이 날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발톱을 깎아드리고 거친 두 발을 정성스레 마사지하고 닦아드렸다. 농사일 하시느라 힘겨웠을 어르신들의 두 어깨와 목도 시원하게 안마해 드렸다. 주님께서 다락방 지체들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 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더운 날 고생이 많다며 우리에게 홍삼정 두 박스를 주셨던 동네 어르신들의 깊은 마음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백세 사진을 찍어드리는 사역도 했다. 사진기 앞에 서려고 예쁘게 치장하시고 오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다. 막상 백세사진을 찍으려니 긴장이 되셨는지 사진기 앞에서 표정이 얼음이 되어버렸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른다. 백세사진이 나오면 목사님이 그 사진액자를 들고 가가호호 심방을 한다. 이보다 좋은 전도의 도구가 없을 것이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시간도 가졌



가정사역공동체가 어르신들의 발을 정성껏 마사지하고 있다.

다. 전도패키지에는 한방파스, 수세미, 수건, 백설기 떡, 전도지가 들어있었는데 특히 파스와 수건, 떡이 인기가 좋았다.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얀색 상의로 복장을 통일한 전도팀의 모습이 마치 흰 옷을 입은 천사들 같았다.

사실 내가 태어난 고향마을에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코흘리게 시절부터 나를 알던 어르신들을 전도 한

다는 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막상 양손에 전도패키지 보파리를 들고나니 이상하게 담대해졌다. 남은 삶이 그리 많지 않은 동네 어르신들께 정말 귀한 선물인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런 것 같다. 이 작은 사역을 통해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을의 잃어버린 어린양들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지난 19일 일본 규슈로 파견된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일본 규슈에 긴급구호팀 파견

NGO 더멋진세상과 대학청년부 수해 지역 파견

NGO 더멋진세상이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일본 규슈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다. 지난 19일 NGO 더멋진세상, 여호수아공동체 청년, 일본어예배 성도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원 10명이 수해 피해 지역으로 급파되었다. 이들은 7월 24일까지 규슈재해지원센터에서 머물면서 진흙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작업을 실

시할 예정이다. 대학청년부 허브공동체 아웃리치팀도 합류할 계획이다.

일본 규슈지역에는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2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하루 해안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떠내려 오고 있는

상황이다. 잠겼던 주택에 물이 빠지고, 산사태로 유실됐던 도로가 복구됐지만 진흙과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다.

김민 형제(여호수아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김영선 기자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불법주차 근절에도 관심 가져야”

지난 주일(1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왔다. 그 덕분에 평소 같으면 2~3일로 주차하던 주차장이 한산했다.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영석 성도(사회선교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주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했

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면 오히려 교회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경비원, 동작대교 주차장 관리인, 양재 온누리교회 인근 빌라 관리인에 따르면 “교회가 불법주차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지 두드림예배 ‘선교사 열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양지 온누리교회가 오늘(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일 3부 두드림예배를 ‘선교사 열전’을 주제로 오후 2시 박모세홀에서 드린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말씀은 선교사들이 전한다. 7월 23일 김성복 선교사(중국, 홍콩) ‘인생의 흥해 앞에 섰을 때’, 7월 30일 이백두 선교사

(동북아시아) ‘친구가 있습니까?’, 8월 6일 조경근 선교사(네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8월 13일 박서일 선교사(세네갈) ‘돌이키면 보이는 아버지의 마음’, 8월 20일 윤정노 선교사(인도)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설교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CGNTV, 한국교회에 방송사역 노하우 전수

부산, 대구, 대만에서 ‘미디어 아카데미’ 실시



부산 미디어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CGNTV가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교회에 방송사역 노하우를 전수했다. 미디어 아카데미는 미디어를 사역에 활용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거나 배우기 힘든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4일 부산 수영로교회를 시작으로 대구 동신교회(11일), 대만 타이베이교회(11일), 까오슝감리교회(14일)에서 실시했다.

CGNTV 미디어 아카데미에는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기획, 촬영, 편집, 스피치, 교회 음향, 디자인, SNS 홍보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서미례 전도사(공주농아감리교회)는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울 곳이 없어 포기하려고 했는데 CGNTV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사춘기 자녀와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부모에게 참 좋은 스쿨이 개강한다. 회복사역 본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가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는 개인, 가족, 부모, 자녀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돕는 가족성장 프로그램이다. 10월14일부터 12월2일까지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학생 13만원, 부모 7만원이다.

문의: 02-3215-3532

한국컴패션, 씬머스쿨 개최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에서 ‘션머스쿨’을 개최한다.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컴패션 한남동 사옥(한남대로 102-5 석전빌딩)에서 열린다. 컴패션 션머스쿨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와 미취학아동들이 대상이다. 쓰레기마을 체험, 워터필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료하면 2시간 봉사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평택M센터 개관준비 한창

사무실 집기, 악기 등 헌물과 봉사자 모집

평택M센터 개관준비가 한창이다. 평택역 뒤편에 예배공간을 마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M센터는 예배당, 강의실, 사무실, 유아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광수, 더기 선교사 부부가 맡아 사역할 예정이다. 그들은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 대학 캠퍼스 전도사역 등을 담당했었다. 평택M센터 개관 즉시 몽골어예배를 드리고, 베트남어, 네덜어, 태국어예배

개척을 꿈꾸고 있다.

이광수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평택M센터 개관을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면서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평택M센터에서는 사무실 집기, 악기 등의 헌물과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평택M센터 010-6343-7588

한누리 학사(탈북 남자대학생 기숙사) 개관

7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모집

탈북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한터가 탈북 남자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한누리 학사’를 개관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 남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

드 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abel26@onnuri.org)로 발송하면 된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한누리 학사에서는 탈북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상담,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문의: 02-3463-9686



동경 기 · 도 · 제 · 목

- 7월 24일(월) 임국과 물품 통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 7월 25일(화) 세미나, 가스펠나이트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 7월 26일(수)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출연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7월 27일(목) 모든 진행된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신뢰하도록
- 7월 28일(금) 일본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 사랑부 부모세미나 기쁨플러스 간증



/ 김미선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사랑부 부모세미나 ‘기쁨플러스’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와 비장애인 둘째, 그리고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된 막내를 돌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육아를 잘 도와주던 남편은 늘어난 회사업무와 상사와의 갈등으로 평소보다 배로 힘들어 보였다.

최근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큰딸이 일반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QT와 기도를 해도 금세 우울해지고 짜증이 밀려왔다. 이런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기쁨플러스에 참석하게 됐다.

남편과 함께 참석한 기쁨플러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 명강의와 댄스시간, 조별 나눔 등은 나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다. 특히 뇌의 통제센터, 관계회로, 감사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내 안의 기쁨을 과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Shalom my body)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슬픔과 기쁨이 모두 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괜찮아, 내가 힘이 되어 줄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아주 작은 감정까지도 소중하게 여겨 주심에 감사했다.

댄스시간은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던 춤은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 되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춤을 추는 동안 감사의 눈물이 나왔다. 은혜로 충만했던 조별 나눔도 빠질 수 없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했다. 무엇보다 감동받았던 것은 바로 섬김감이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나의 상황은 그대로였다. 장애를 가진 큰딸, 에너지가 넘쳐나는 둘째 아들, 안아 달라고 울어대는 12개월 막내까지 나는 여전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배운 ‘Shalom my body’를 통해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고 고백하며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랑부 부모세미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 홀리 임팩트 음반 제작 후기



/ 정승원 자매(홀리 임팩트 팀장)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홀리 임팩트 음반 제작에 4번 참여했다. 매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일들과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중보기도였다. 목사님은 앨범을 준비하고 음원이 나오는 날까지 팀원 한 사람당 10명의 중보자를 세워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다. 그렇게 17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졌다. 매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중보기도자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실제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원유경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름 부으심이 사역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은 기도로 빚어지지 않은 그릇에는 담기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던 시점에 이유 없이 어깨 통증이 찾아왔다. ‘나로 인하여 앨범에 최고와 최선이 담기지 못하면 어쩌지’, ‘팀과 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등의 생각이 들어 힘들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온전히 의탁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드린다는 고백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였다. 솔하게 고백했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행하여 주십시오”를 몸소 체험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앞드리게 되었다.

녹음 당일, 자신 있게 단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첫 곡부터 드럼 부스 안에서 긴장이 되고,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바닥났다. 준비한 대로 마음껏 연주할 수가 없었다. 그때의 처참하고 부끄러운 마음과 다르게 예배 현장의 은혜가 잘 담긴 음원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힘을 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앨범은 나뿐만 아니라 홀리 임팩트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홀리 임팩트 제작 과정을 인도하셨다.

■ 선교사 파송 간증



/ 박성실 선교사(남아시아 N국)

주님의 때가 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고향인 부산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국내에서 전도활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복음에 빛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선교를 준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주님 앞에 선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눈물 흘리던 시간도 있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서울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서울의 한 대기업 공채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1994년 10월 상경하였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훈련도 받을 수 있었다. 곧 바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등록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설교를 들으면서 비전도 키워나갔다. 선교단체, 신학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서 주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조금씩 이루어갔다. 23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훈련도 받았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들 앞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다. 내가 가게 될 선교지는 남아시아 N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님! 남아시아 N국은 선교사가 많은데 왜 남아시아 N국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남아시아 N국에 선교사와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남아시아 N국 복음률이 3.2% 정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권에 있는 기독교인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아시아 N국에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한다. 또한 남아시아 N국에 있는 일부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남아시아 N국에서의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동시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에게 올바른 신학적 토대를 세워주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후기



/ 조재환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예수님과 포도주

성경을 통독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방대한 내용과 생소한 용어, 앞뒤가 연결되지 않은 구절 때문에 매번 2-3장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곤 했다. 실패의 원인이 나의 무지와 열정 부족이었음을 알고 이를 타개하고자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참석을 계획했다. 아내에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싶었다.

첫날 오전 5시 30분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6박 7일 동안의 여정을 시작했다. 성경 말씀의 배경, 이면적인 의미 등을 모르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공부와 투어를 진행할수록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무지와 이해력 부족으로 그 뜻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류모세 목사님으로부터 가나안 지역의 혼인 절차와 혼인 잔치에서의 포도주 이적에 대한 의미를 듣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가나안 지

역에서 신랑은 정혼한 신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혼인잔치 마지막 날 포도주를 내미는데 신부가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고 거부하면 파혼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당신이 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당신의 신부로서 함께 예비하신 곳으로 가고자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결혼식 하객으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주신 포도주를 마셨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성경공부와 성지투어, 류모세 목사님의 강해를 통해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이번 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결심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열린다성경 스터디 이스라엘 투어

일정: 1차-11월 25일(토)~12월 1일(금)

2차-12월 23일(토)~12월 29일(금)

문의: 010-4902-1022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레’라는 것은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앞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앞서 가시지만 그렇다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앞서시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생애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모든 오해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후반부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 45:7-8).

요셉이 순간순간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 후반부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과거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지나온 여정에서 순종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앞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준비하십니까. 그래서 한 여자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따뜻한 햇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침을 주시기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성도라면 미래를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소서 따르겠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경험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앞서 가시며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

며, 하나님께서 앞서 가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내어 쫓고, 우울함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장로교 설교자 존 케언스 목사님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앞서 가소서. 따르겠나이다.”

그분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런 기도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서 가소서. 따르겠나이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했습니다.

내가 그렸던 꿈, 비전,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죽음 너머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햄버거병’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최근 4세 어린이의 가슴 아픈 사연이 보도되었다. 그 아이는 복통, 설사, 혈변을 보인 뒤 ‘용혈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진단받았다. 다행히 퇴원했지만 신장기능이 손상돼 복막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용혈요독증후군은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질병일까? 나나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의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 질문들이 생겼다.

용혈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은 미세혈관병증 용혈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소아에서 급성신기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설사가 동반되는 유형을 전형적(설사 연관형) 용혈요독증후군, 그렇지 않은 모든 유형을 비전형적(설사 무관형) 용혈요독증후군으로 구분한다.

앞서 소개한 4세 아이의 질병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용혈요독증후군이 햄버거병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93년 미국에서 부터다. 미국 서부 4개 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사람 700명 이상이 이 병에 감염되었고, 이들 중 4분의 1이 입원했다. 감염환자 중 7.5%에서 용혈요독증후군이 발생하였고 4명이 사망하였다. 역학

조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 coli O157)에 오염된 덜 익힌 햄버거 패티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25만개 이상의 햄버거가 리콜되면서 추가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용혈요독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다. 감염, 유전, 약제사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설사 연관형의 경우 주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이 원인이며, 이질균 감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폐렴구균 감염, 일부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드물게 선천성면역(보체) 결핍 등 유전성 요인도 있을 수 있으며 항암제, 경구피임제 등 약제 복용,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등의 전신 질환, 이식 거부반응, 임신 등에 의해서도 발병하기도 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균은 혈청형이 약 170여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혈청형으로는 O157, O26, O91, O111 등이 있다. 감염 후 잠복기는 2~10일(평균 3~4일)이며 증상은 설사, 혈변, 구토,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난다. 무증상에서부터 합병증인 용혈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에서 감염이 가능하지만 5세 미만 소아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심한 증상

을 보인다. 특히 감염된 소아 10명 중 1명에서 용혈요독증후군이 발생하며, 소아에서 발생하는 용혈요독증후군의 90% 이상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도 가능하다. 소고기류 가공된 음식물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 오염된 채소나 주스, 마요네즈, 소시지 등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도 보고되었고, 분변에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을 통해서 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의 유행이 종종 보고되지만 가정에서의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보고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443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연간 평균 74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0~4세 161명(36.3%), 5~9세 68명(15.3%)으로 전체 환자의 51.7%가 10세 미만 연령에서 발생했다. 용혈요독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24명이었는데 0~4세가 14명, 5~9세가 3명, 10세 이상 7명으로 어린이에게 잘 발생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

다.

용혈요독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주로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수술적 이외의 치료)를 하게 된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약 10% 미만은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며, 치사율은 소아의 경우 2~7%, 65세 이상에서는 50%까지 보고되고 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손 씻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 및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소독 등),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등이다. 특히 음식 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기저귀 교체 후,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용혈요독증후군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



이현주 성도(CMN)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주일7부예배 라이어모집

시간: 매주 주일 오후 7:30~10:30

장소: 본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목요선교집회 심어모집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30~9:15

장소: 비전홀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금요회복예배 심어모집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6:00~8:30

장소: 본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2000선교 파트너사 모집 공고

자격: 온누리 등록교인, 선교지역관심자,

12개월 이상 근무가능자

내용: 4대보험, 선교본부 후원사역부 업무

및 기타

제출 마감: 7월 30일까지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교회양식)

접수: anam73@onnuri.org

문의: 남승도 간사(02-3215-3216)

CMN 드림팀 여름 아웃리치

일정: 8월 12일~18일(스리랑카 해튼)

모집: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비용: 160만원

문의: 우승엽(010-4230-1474)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CGNTV를 보다, 은혜를 나누다.

제1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접수기간
~ 7월 31일(월) | 발표
2017년 8월 18일(금)

해당프로그램 : CGNTV를 통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및
KNOCK, 웹드라마 등 SNS 콘텐츠

양식

형식 : 자유형식, A4용지 1-2장 내외 (그림 및 사진 첨부 가능)
필수기재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프로그램명

응모방법 : 온라인접수(www.cgntv.net) 또는
이메일접수(essay17@cgnmail.net)

문의 : 편성기획팀 02-3275-9446

시상

대상	42인치 TV	1명
최우수상	외식상품권(15만원상당)	3명
우수상	블루투스 스피커	5명
장려상	보조배터리	5명
입상	기독신간도서	10명

“CGNTV와 함께 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3회

노커스 영상 공모전

모집기간

2017. 8. 15 ~ 2017. 9. 8

복음의 감동과

일상의 기쁨이 교차하는 ‘그 영상’
영상선교에 비전을 가진
개인&단체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페이스북에서 “KNOCK 노크” 를 검색하세요

주제

기독교 메시지가 담긴 자유 주제

공모분야

아웃리치(단기선교) 보고영상, SNS 기독영상, 기독단편드라마
(순수 제작물만 지원 가능하며 입상작은 KNOCK 페이스북 게재 예정)

시상

1등 300만원 / 2등 150만원 / 3등 50만원

형식

4분 내외의 영상 (MP4, AVI, WMV 포맷 2G 이내)

제출

ucla2215@cgnmail.net

문의

02-3275-9526, 9437